

ROSSINI OPERA

# Il Viaggio a Reims

로시니 오페라 **랭스로 가는 길**

오페라 <랭스로 가는 길>은 로시니가 1825년에 프랑스 왕 샤를 10세의 대관식을 기념해 작곡한 '축하용 오페라'이다. 랭스는 비록 작은 도시지만 '대관식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이다. 랭스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크고 위엄 있는 성당이 있어서 대관식은 항상 이곳에서 여는 것이 몇 백 년 동안 이어진 오랜 전통이었다. 서민뿐만 아니라 유럽의 귀족은 물론 지위와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모두 대관식에 참석하고 싶어 해서 로시니 시대에도 랭스로 가는 길은 마차도 말도 모자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로시니는 랭스의 대관식에 참석하려는 유럽의 다양한 사람들의 여정을 소재로 삼는 기발한 착상을 했다.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귀족과 귀부인들 랭스 도착이 얼마 남지 않은 도시의 한 호텔에 묵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물의 다양한 이야기가 지위와 직업에 따른 독특한 캐릭터와 각 나라별로 다른 민족성을 보여주면서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특히 폴레빌레 부인이 모자를 잃어버리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장면을 첫 에피소드 장면으로 시작해서 14명의 성악가가 부르는 오페라 사상 최대의 중창인 14중창, 피날레의 첫 장면에는 참석자 전원이 펼치는 노래 경연 대회 장면이 있어 축제 분위기를 최고로 만든다. 단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여유있는 인간미와 예술을 보는 비평적인 시각을 동시에 가진 로시니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music theater schwaabing



## 뮤직씨어터 슈바빙

자유, 젊음, 열정, 낭만이 넘쳐흐르는 뮌헨의 몽마르뜨.

자유, 청춘, 모험, 천재, 예술, 사랑, 기지, 순수, 욕망, 열정 등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의미.  
슈바빙은 음악적 미학과 연극적 리얼리티를 살린 효과적이고 다양한 무대 예술을 추구함과 동시에,  
모노 음악극, 연극적 음악극, 추상적 음악극 등, 극음악 창작에 새로운 시도를 지향한다.

또한 예술적 감성과 열정을 가진 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무대로 이끌어,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여 그들의 예술적 초혼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